순천상의, 청년 클린카 전달식 및 간담회

출퇴근 교통 취약한 율촌·해룡산단 내 기업의 청년사원 전기차 임대료 지원

순천상공회의소는 지난 8일 해룡산업단지에서 행정안전부와 순천시가 주관하고 순천상공회의소가 추진하는 청년클린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차 전달식 및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출퇴근 교통이 취약한 율촌·해룡산업단지 소재기업 중 클린카를 신청한 청년사원 29명과 순천시, 순천상공회의소, 율촌해룡산단협의회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클린카 전달식과 현장의 애로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삼미메탈 김지현 사원은 "청년클린카를 평일에는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주말에는 여행용으로 활용함으로써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면서 "산단 내 더 많은 청년 근로자가 혜택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 클린카 전달식에 참석한 순천시, 순천상공회의소, 율촌해룡산단협의회 관계자들과 해당 사업을 신청한 율촌·해룡산업단지 내 기업의 청년사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종욱 순천상의 회장은 "청년클린카 지원사업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친환경 클린정책 실현, 청년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등 지역에 파급효과가 큰 만큼 행안부와 순천시에 건의해서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클린카 지원사업은 도심과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간 전기차 임차비를 지원해줌으로써 청년 취업을 촉진하는 정부지자체사업이다.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현대제철 협력사등총 16개사 29명의 청년에게 전기차 임차비를 지원하고 있다.

정수현 기자

전라남도순천의료원 개원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김영록 도지사.

순천의료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 성료

김영록 전남도지사 "100세 시대 맞는 새로운 공공의료기관 되길"

전남도순천의료원이 개원 100주년을 맞아 14일 야외공원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이용재 도의회의장, 허석 순천시장, 정효성 순천의료원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100주년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개원 100주년을 축하하고 '도민과 함께한 순천의료원 100년, 함께할 100년'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행사에선 도립국악단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과 기념석 제막, 기념역사관 개관식이 진행됐다.

김영록 도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그동안 순천의료원이 성장하기까지 애정을 갖고 이용해 주신 지역민들께 감사하다"며 "지난 100년을 성찰하고 다가올 100년을 잘 준비해 100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부 축하행사에선 마술, 퓨전국악, 가요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순천의료원 100년 역사를 담은 사진전과 전남의 아름다운 절경을 담은 사진 전시회도 열렸다.

또 부대행사로 마련된 캘리그래피, 캐리커쳐, 페이스페인팅, CPR체험, 암 예방 홍보, 당뇨 측정, 혈압, 금연클리닉 등이 진행돼 지역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한편 순천의료원은 지난 1919년 순천자혜의원으로 개원, 도립순천병원, 전남도순천의료원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돼 올해로 개원 100년을 맞았다. 그동안 메르스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감염격리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재활병동, 호스피스병동, 정신병동 등 수익이 낮아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분야를 선도적으로 제공해왔다.

정수현 기자

순천시 "국립해양기상과학관 지역으로 가져와야 될 시기"

사실상 여수지역 내 유치 여부 정리돼야 재추진 논의 가능

순천시는 '잡월드'와의 연계성을 내세우며 여수시가 국비사업으로 유치한 (가칭)국립해양기상과학관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여수 지역사회의 대안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순천시 한 관계자는 "순천만정원박람회장 인근에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코에듀센터)과 직업체험 시설인 '잡월드'에 국립기상과학관까지 유치하면 시너지 효과로 인해 2년 전 여수시와 무관하게 추진했으나 당시 여수시에서 강력반발해 대승적으로 양보했던 사안"이라며 "여수 지역 사회에서 국립해양기상과학관 유치여부가 먼저 완전히 정리돼야 재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에 지난 14일 권오봉 여수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을 촉구하는 시민 청원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반대의견을 펴고 있는 시의회의 대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지난 9월 열린 제195회 시의회 상임위에서 박람회장 부지매입 안건이 부결되어 과학관 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지제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상청에서 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을 포기할 수 있다"며 현안을 토로했다.

당시 기상청에서 국비로 시행하는 이 시설은 국비 266원이 투입되는 시설로 시에서는 토지매입비 70억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내걸어 유치에 성공했다.

그리고 여수시는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 부지를 여수박람회장 아쿠아리움(한화 아쿠아플라넷) 옆 부지 5000㎡를 정하고 매입 예산 70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보고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취임한 권 시장은 시청 홈페이지 시민 청원방에 글을 게시하고 20일 내에 300명 이상의 지지를 얻으면 시장이 직접 청원자와 면담하겠다고 공약한 대표적 쌍방향 소통 시책이다.

권 시장은 이 자리에서 "해양기상과학관은 여수세계박람회 정신 계승과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라면서 "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가 각고의 노력 끝에 2017년 12월 용역비 1억 원을 어렵게 확보해 올 8월 용역을 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의회에 상정했으나, 국가시설물 건립에 여수시가 부지를 제공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안건이 유보됐고, 이로 인해 2020년 실시설계비 국비 11억 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시에서는 전북, 대구기상과학관을 비롯해 개관을 앞둔 충주,밀양,홍성기상과학관까지 전국의 5개지역 모두 해당 지자체에서 부지를 제공한 점을 감안해 공모를 통한 국립(국가) 시설 유치를 위해서는 부지제공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의회(의장 서완석)는 시에서 승인을 요청한 박람회장 땅을 매입해 국립기상과학관 부지로 제공해 국립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부당하며, 무상사용이 가능한 대체 부지를 찾아야한다는 논리를 펴며 상임위에서 부결시켰다.

한편,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은 지상 2층, 3000㎡ 규모로 태풍,집중호우,해일 등 자연재해의 해상관측과 체험, 교육시설이 들어선다.

이문석 기자

순천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개회

오는 25일까지 안건 심의·의결 등 의정활동

순천시의회(의장 서정진)는 16일 제23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5일까지 10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 발의된 안건 4건과 순천시에서 제출한 조례 제·개정 및 일반안건 29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시정방향과 주요 추진사업을 미리 살펴보는 202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2~23일 이틀간은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전반에 관해 심도 있는 점검을 실시한다.

서정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정질문은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 전반에 대해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2020년 업무보고에 대한 꼼꼼한 점검 등 충실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이번 임시회가 시민들의 행복과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이명옥 의원은 대상포진이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해 줄 것을 촉구했으며, 이영란 의원은 전남 동부권 주민들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내 심뇌혈관 환자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순천시에 전남동부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추가 지정과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김미연 의원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 규명과 더불어 진압과정에서 희생된 민간인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주문했다.

곽송호 기자

순천시-순천경찰서 몰카 불법촬영 합동 단속

순천시는 몰래카메라 사건을 계기로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순천경찰서와 함께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몰카)범죄 근절을 위해 순천역과 순천터미널 등 공중화장실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시청과 순천경찰서 합동으로 전문탐지장비를 이용해 공중화장실에 위장형·초소형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했으며 지금까지 점검결과 몰래카메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시는 오는 11월까지 관내 모든 공중화장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용자가 많은 다중 이용시설 화장실은 순천경찰서와 불법촬영 합동 단속과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단속 중 불법촬영 기기가 발견되면 경찰 수사를 통해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불법 촬영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시점검 체계를 운영해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순천남초등학교 제59회 동문들, 총동문체육대회 끝까지 남아

전국 최초, 학교재생으로 빛나는 순천남초등학교

순천시·순천교육지원청 순천남초 학교재생 업무협약

114년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간직하고 품은 곳, 초롱한 눈빛을, 비상을 하려는 250여 명의 어린이가 자연의 품속인 순천남초등학교에서 지난13일(일) 총동문체육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 행사 자리에 참석한 허석 시장, 서정진 의장, 김병권 시의원, 허유인 시의원, 정홍준 시의원, 이현재 시의원 등이 함께 자리했다.

특히 이번 체육대회 행사 주관은 제69회 동문이 진행하고, 제59회 동문이 후원하였고, 매년 동일한 방식으로 제59회 동문들도 이번 총동문 체육대회를 끝으로 내년부터는 참석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제59회 재경 서울 동문 친구들이 약 10여명이 12일 저녁 순천에 내려와 함께 자리하고, 체육대회 행사가 끝난 후 저녁식사와 함께 2차까지 자리한 후 저녁 8시경 출발했다.

서울로 출발한 한 동문은 60세를 끝으로 초등학교 체육대회 동문가족과도 이젠 이 순간으로 모두 이별이기에 멀어져가는 또 다른 이면을 가지고 마음에 간직하고 간다면서 출발했다.

그리고 2018년 작년 체육대회에서 58회 한 선배가 이야기한 사안이 문득 떠올라 이제 그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서 서울로 가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사람이 사는 세상이구나'라며 되새겼다.

오후에 한 후배가 다가와서는 총동문체육대회는 작년부터 잘못되어 올해도 그리고 내년에는 더욱 더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면서 58회 선배들이 다시 나와 재결성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강력히 강조했다.

더불어 지난 2018년 총동문체육대회 추진과정에서 어떠한 사안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주관이 58회가 되고 후원이 68회가 되어야했으며, 2019년 또한 59회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후원으로 되어 이 또한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

더군다나 총동문회장을 58회 그리고 59회 선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1회로 바로 간 부문에 대해서도 일부 후배들의 논란이 있어 58회 선배와 59회 선배들 간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했다.

제59회 동문친구들과 함께 하루를 이렇게 즐겁게 보내고 있으며, 또 초등학교를 함께 보냈던 친구들 만나서 총동문체육대회를 마쳤으며, 올해 후원 기수로 참여해 서로서 도와가며 59회의 저력을 보였다.

친구란 이래서 마냥 좋은건가? 초등학교 졸업 후 처음 만나는 친구도 있었건만 하나로 뭉칠 수 있어서 좋았던 하루였고, 서울에서, 인천에서, 완도에서, 광주에서 열일 제껴두고 모여 준 친구들이 너무 고맙다. 모두 모두 사랑한다.

신서연 기자

연혁 목록

2019.02.15	제106회 졸업 (졸업생50명, 졸업총수 36,133명)
2018.03.01	제40대 조승래 교장 부임
1999.09.01	삼거분교장 폐교
1996.03.01	순천서교, 삼거분교장 편입
1996.03.01	순천남초등학교로 개칭
1984.06.01	병설유치원 개원
1950.04.01	순천남국민학교로 개칭
1941.04.01	순천남공립국민학교로 개칭
1938.04.01	순천 남 공립심상소학교로 개칭
1911.11.01	순천공립보통학교 인가
1906.04.01	사립승명학교

임종기 의원 '전남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전라남도지사의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에서 청구사항이 전부 인용되는 경우 청구인이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종기(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지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과정에서 청구인이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제정됐다.

이 조례의 행정심판은 전라남도지사의 행정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청구사항 전부 인용재결에 한해 50만원 이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한다.

임종기 의원은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 행정행위에 대한 도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행정의 신중함을 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효성 기자

順天日報 2017년 8월 11일 창간
등록번호 전남-다-00373

회장 전 효 성
총괄대표 곽 송 호
대표이사·발행인 정 순 이
편집인 이 문 석

기사제보 / 광고·구독 : 061-741-9115
팩스 : 061-752-6800
E-mail : mornnews@hanmail.net
인쇄 DM코리아(주)

전남 순천시 중앙2길 23-1(장천동) www.scib.kr
구독료 1개월 10,000원 / 1년 100,0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